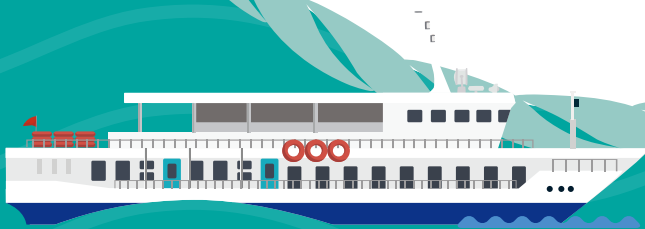


바다가 알려주는
항로 이야기

경북







이 경북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포항항은 천혜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의 해양관광역할을 한다. 포스코 등 배후 철강 공단을 지원하는 신항과 모래, 유류 등을 취급하는 구항(송도부두, 여객부두, 화물부두 및 동빈부두) 그리고 2009년 8월 대구, 경북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로 개장한 영일만항이 있다.



#포항항



*출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북 [慶北]

- 일반항로
- 보조항로

여객선 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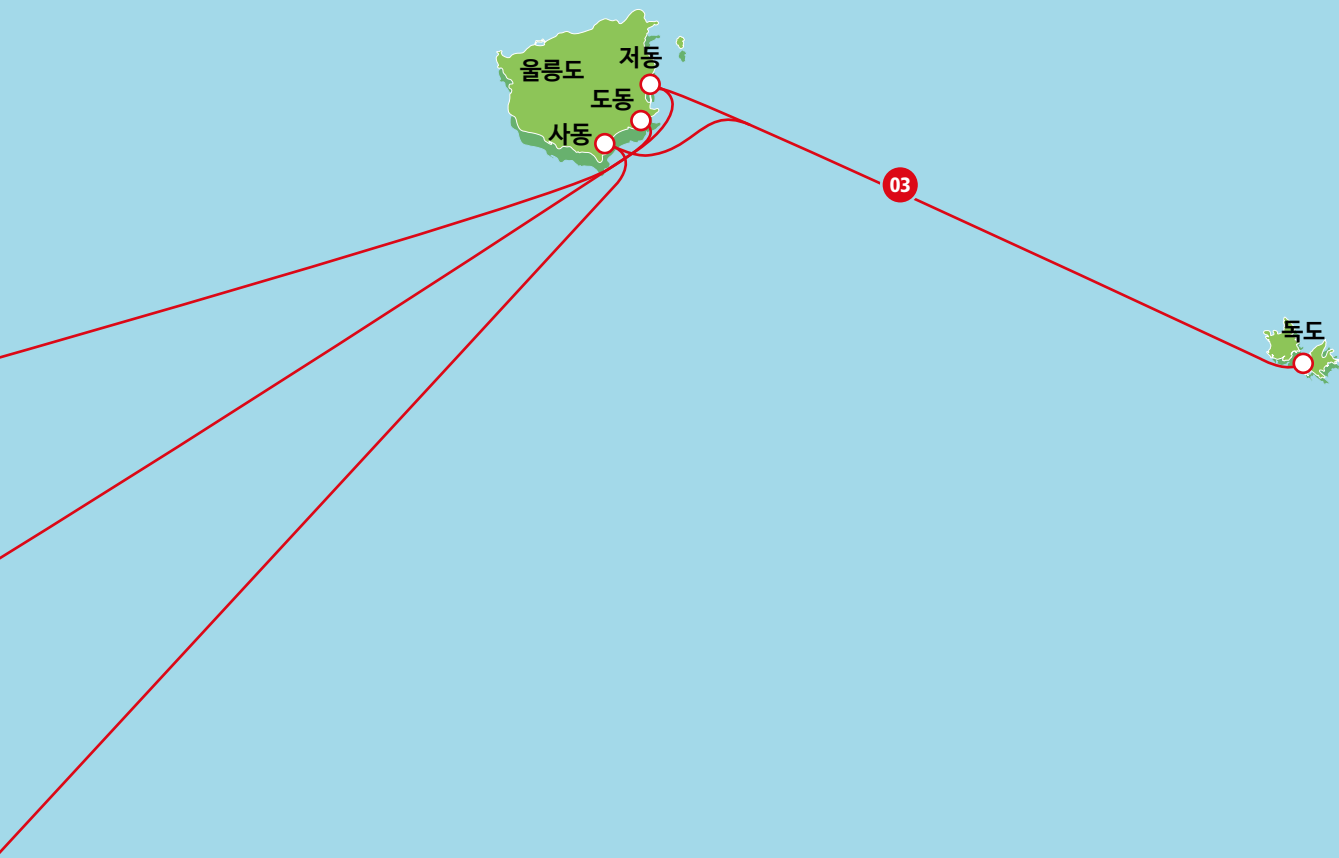
- 01 포항 - 울릉 [포항, 울릉]
- 02 후포 - 울릉 - 독도 [후포, 울릉, 독도]
- 03 울릉 - 독도 [울릉, 독도]

포항 01

후포









02





경북운항관리센터

경북지역은 포항에 자리하고 있는 경북운항관리센터를 비롯하여
울릉도의 도동, 저동, 사동 운항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명의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업무개시일 | 1973. 12. 15.  규모 | 93m²  근무인원 | 5명
-  경북지사 | (054) 246-5395  경북운항관리센터 | 054-256-9784~7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44, 포항여객선터미널 1층
-  관리여객선 | 4개 항로 6척  관리지역 |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 일원





01 울릉도 도동 운항관리사무소

📅 **개관일** | 2013. 11. 17. 🏠 **규모** | 47㎡ 👤 **근무인원** | 1명
📍 **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23



02 울릉도 저동 운항관리사무소

📅 **개관일** | 2010. 12. 03. 🏠 **규모** | 19㎡ 👤 **근무인원** | 1명
📍 **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83



03 울릉도 사동 운항관리사무소

📅 **개관일** | 2012. 05. 01. 🏠 **규모** | 23㎡ 👤 **근무인원** | 1명
📍 **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85-25





01

포항 ~ 울릉 항로

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까지 항해하는 항로로 운항거리 약 117마일, 운항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포항-울릉 항로는 동해의 짙푸른 바다와 수평선상을 감상할 수 있는 항로로 비교적 단순한 해상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항로이다. 평상시에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최단거리 항로로 운항하지만 기상악화 시에는 해안선을 따라 후포항 인근까지 북상하여 울릉도로 향하는 2항로로 운항하거나, 동해남부·중부 앞바다를 거쳐 곧바로 동해중부먼바다를 통해 울릉도로 향하는 3항로로 운항하기도 한다.

4~5월

울릉도를 방문하는 나들이객 및 등산객들로 수송수요가 증가한다.
 나리분지, 봉래폭포, 관음도를 비롯하여
 울릉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다.



1. 운항 여객선

🔍 엘도라도호

엘도라도호는 포항항과 울릉도 도동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으로 09:30에 포항에서 출항하여 14:30에 울릉 도동항에서 포항으로 되돌아오는 1일 왕복 1회 운항하고 있다. 주요 이용객은 도서민 및 울릉도·독도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편의시설로는 매점이 있다.

기항지
소요시간
포항-울릉(3시간 30분)



총 톤수	668톤	운항횟수(왕복)	1회	기관출력(kw)	2,320×3 2,465×1
여객정원	414명	항해속력(노트)	34	진수년월	'99. 05.
승무정원	5명	운항거리	117마일	소요시간	3시간30분
선종	쾌속선	여객선사	(주)대저해운		



☑️ 선사 홈페이지



☑️ 여객선 안전정보



☑️ 여객선 운항정보



☞ 썬라이즈호

썬라이즈호는 포항항과 울릉도 저동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으로 3월~11월에는 08:50에 포항에서 출항하여 14:00에 울릉 저동항에서 포항으로 되돌아오는 1일 왕복 1회 운항하며, 동절기인 11월~3월에는 10:50에 포항을 출항하여 15:20에 울릉도 저동항에서 포항으로 되돌아오는 1일 왕복 1회 운항한다. 주요 이용객은 도서민 및 울릉도·독도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편의시설로는 매점이 있다.

기항지
소요시간

포항-울릉(3시간 10분)





총 톤수	388톤	운항횟수(왕복)	1회	기관출력(kw)	1,440X4
여객정원	442명	항해속력(노트)	38	진수년월	'14.10.
승무정원	4명	운항거리	118마일	소요시간	3시간10분
선종	초쾌속선	여객선사	(주)대저건설		



☑ 선사 홈페이지



☑ 여객선 안전정보



☑ 여객선 운항정보



🔍 우리누리1호

우리누리1호는 포항항과 울릉도 사동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으로 4월~11월에는 09:10에 포항에서 출항하여 14:00에 울릉 사동항에서 포항으로 되돌아오는 1일 왕복 1회 운항하며, 동절기인 11월~3월에는 09:00에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하여 14:30에 포항에서 울릉도 저동항으로 되돌아오는 1일 왕복 1회 운항한다. 주요 이용객은 도시민 및 울릉도·독도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편의시설로는 매점, 수유실이 있다.

기항지
소요시간
포항-울릉(3시간 20분)



총 톤수	534톤	운항횟수(왕복)	1회	기관출력(kw)	1,740×4
여객정원	448명	항해속력(노트)	36	진수년월	'05. 01.
승무정원	5명	운항거리	115마일	소요시간	3시간20분
선종	초쾌속선	여객선사	(주)태성해운		



☑️ 선사 홈페이지



☑️ 여객선 안전정보



☑️ 여객선 운항정보



2. 접안시설 현황 및 특징

🔍 포항

포항항은 형산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포스코가 있는 신항, 북쪽은 여객선터미널이 있는 구항으로 구분된다. 영일만이 북동쪽으로 열려 있어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접안 시 주의가 필요하다. 포항 구항 입구의 수로 폭이 200m 정도로 협소하여 여객선 및 화물선 입·출항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방파제 입구 쪽에 멸치잡이 어선 등 성어기에 소형 선박 등이 많아 철저한 견시가 필요하다.

•배치도



1 포항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500명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02.12.1.



2 포항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373 x 20 x 2,5
접안시 선수방위	284°
거주인구(명)	(포항시) 500,000

🔍 울릉도 도동항

울릉도 남동쪽에 자리한 도동항은 항의 입구가 남동쪽으로 열려 있으며, 입구 부분에 파제제(TTP)가 설치되어 있다. 입항 시 강한 바람에 의한 선체 압류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속도(6~8kts 가량)를 유지하면서 부두에 근접해야 한다. 출항 시 항내 선회장이 협소하여 이안 후 선박속력을 점진적으로 증속하여 출항하여야 한다. 안벽 길이 및 여유 공간이 협소하여 2,000톤 이상의 카페리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이 불가능하며, 포항 및 묵호항 여객선이 동시간대 승·하선이 이루어지므로 여객과 차량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배치도





1 울릉도 도동항 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3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3. 11. 17.



2 울릉도 도동항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128 x 10 x 2.5
접안시 선수방위	321°
거주인구(명)	9,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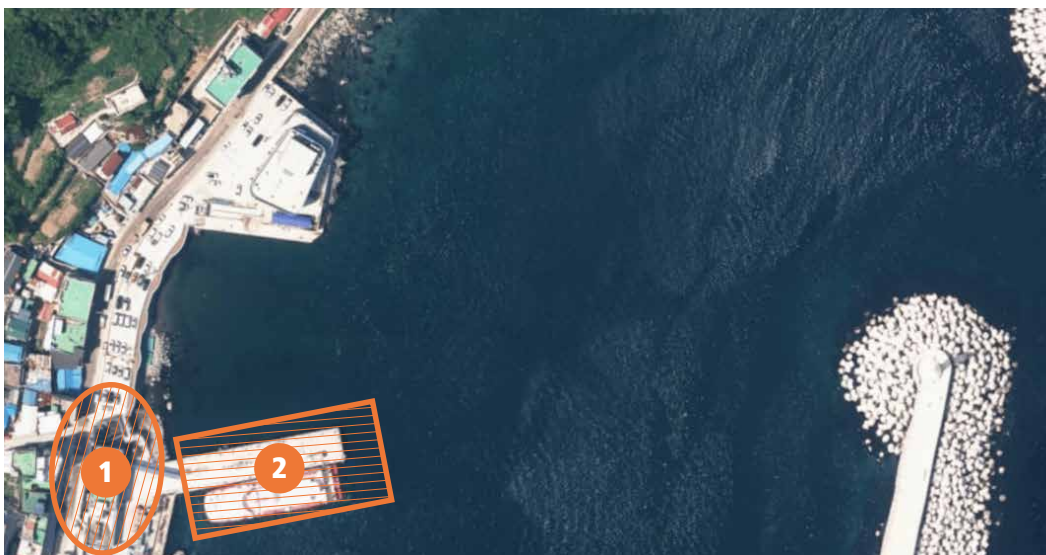
- ☑ 야간 입항 시 도동항 입구 좌우에 설치된 산책로 조명으로 인해 항로 입구 좌·우 등대 식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울릉도 저동항

울릉도 동안에 위치한 국가어항이다. 항내수심은 2~12m이며 저질은 바위, 펄, 모래이다. 항의 입구는 동쪽으로 열려 있으며, 서풍 계열의 바람이 10m/s 이상일 경우 지형의 영향으로 국지풍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접안에 주의를 요한다. 호안 면적이 1,000여 척(10톤 510척, 30톤 150척)의 어선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으며, 기항지 부두 안쪽에 다수의 어선이 접안해 있어 입·출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돌제부두가 방파제와 거의 일직선에 위치하여 북동 너울 형성 시 너울이 항내로 바로 유입되니 기상 악화 시 비교적 안전한 항내 또는 사동항으로 피항해야 한다.

• 배치도



1 울릉도 저동항 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3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0. 12. 3.



2 울릉도 저동항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	30 x 9 x 3
접안시 선수방위	264°
거주인구(명)	9,200



- ✔ 3km 앞 해상에 죽도와 마주하는 촛대암이 있어 입·출항 시 기준이 된다.
- ✔ 안벽 선수 부근에 암초가 있어 부두와 근접하여 입항하며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

🔍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와 접안부두가 매우 근접해 있어 협소한 항내수역에서 방파제 통과 직후에 접안자세를 취해야 한다. 20kts 이상의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경우 압류가 심하고 방파제 통과 직후 대각도로 변침해야 하므로 증속할 수 없어 선박조종이 아주 불리하다. 이안 시 전방 및 후방의 여유수역이 부족하여 수평이동(정횡이동) 후 출항한다. 정박 중 동풍 계열의 바람 및 파도 유입 시 부진동현상이 발생하니 여객 승·하선 시 주의를 요한다.

•배치도



1 울릉도 사동항 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6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2. 5. 1.



2 울릉도 사동항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270 x 20 x 3
접안시 선수방위	294°
거주인구(명)	9,200



- ☑ 포항-울릉 정기화물선 두 척이 사동항에 기항하고 있어 화물선 입·출항 시 통항선에 의한 상호 간섭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항로구간의 수로 정보

🔍 조류 및 조석

• 조류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의 특성으로 인해 동해안에는 조류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바람에 의한 미약한 표면류가 있다. 주로 해류의 강약에 따라 유향, 유속이 변하며 유속은 1kts 이하이다. 울릉도 부근에는 0.8kts 이하의 편동 해류가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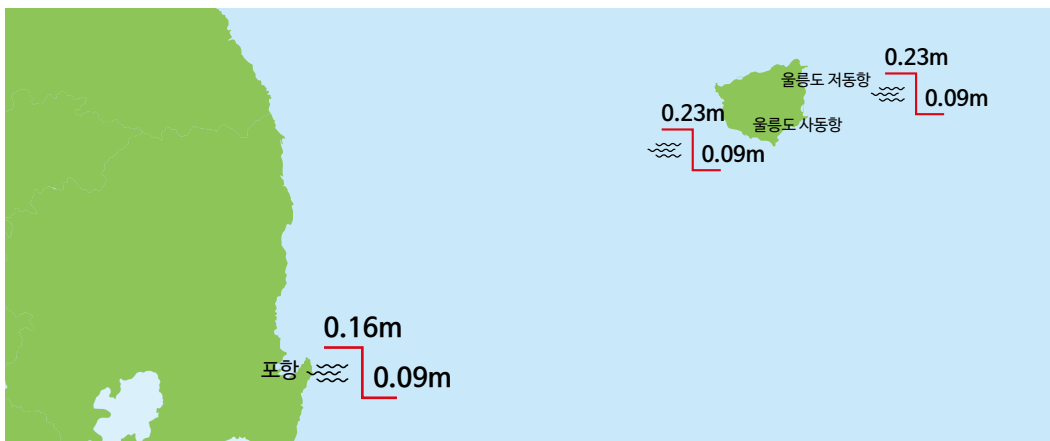
항로구간	최강창조류		최강낙조류	
	유향	유속	유향	유속
포항/울릉	-	-	-	-

• 조석

동해안 간만의 차는 연중 최대 30cm 내외에 불과하다. 포항항에는 조석 이외에 60~84분 주기의 해면승강이 있으며, 그 높이는 50~60cm가량이다.

(단위:m)

구 간	현 황		표준항인 포항과 조시차(분)
	고조	저조	
포항	0.16	0.09	-
울릉도 저동항	0.23	0.09	- (표준항 : 울릉도)
울릉도 사동항	0.23	0.09	+9분 (표준항 : 울릉도)



🔍 기상 특이사항

• 바람(항해에 지장을 주는 풍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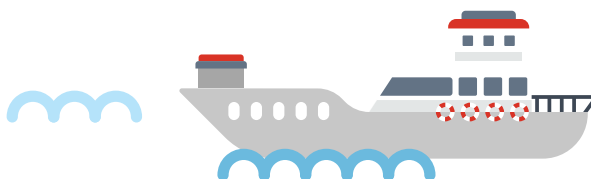
포항에서 울릉도로 항해할 때는 북동풍 및 동풍,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항해할 때는 서풍 및 북서풍이 불 때 항해에 지장이 있다. 동해안에 위치한 항구 및 그 인근해역은 태백산맥이 북서계절풍을 차단하여 바람이 비교적 약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면 바람이 강해져 울릉도 부근의 해역과 동해안 항구의 기상 및 해상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다. 울릉도 부근해역은 연평균 풍속이 3.7m/sec 이고, 8m/sec 이상 강풍이 부는 날은 연중 208일, 기상특보 발효일수는 67회에 달하고, 기상 상태가 양호한 여름을 제외하면 월 평균 15~22일 동안 강풍이 분다.

•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주로 7~10월경 발생하며, 태풍의 진행경로에 따라 울릉도는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을 뿐 아니라 태풍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피항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에 태풍 내습이 예상 될 경우 포항 또는 진해 등 안전한 지역으로 피항한다.

• 평균 풍속 시 파고높이

구 분	NW	NE	SW	SE
5m/s	1.1~1.2m	1.2~1.4m	0.9~1.2m	1.0~1.2m
10m/s	2.0~2.5m	2.0~2.5m	1.8~2.3m	1.8~2.3m
15m/s	3.2~3.8m	3.3~4.0m	2.8~3.8m	3.0~3.8m



4. 항로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 준수사항

포항 구항 및 신항을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영일만에서 조업 중인 소형어선에 의해 간혹 혼잡을 빚는 경우가 있으며, 선박의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 안전 속력 유지 구간

최고속력에 제한이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

구역	최고속력	비고(특이사항)
구항 북방파제와 방사제를 연결한 선내의 수역	5kts 이하	포항항 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제7조

🔍 항로상 위험요소



• 해무 발생지역

동해안은 서해안, 남해안에 비하여 해무 발생일수가 적은 편이다. 울릉도 인근 해역의 연 평균 해무 발생일은 약 16일 정도이며, 해무 발생 시기는 4~8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간 해무 발생일은 연간 해무 발생일에 80%가량을 차지한다. 해무의 지속시간은 평균 4시간 미만으로 짧은 편이며, 일출 전에 해무가 발생하여 일출 이후 기온 상승으로 해무가 소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7월에 발생하는 해무는 지속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간혹 수일간 소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압초

항로에서 약 5마일 떨어진 36-43-09N, 129-43-56E 위치에 수중압초인 왕돌초가 존재한다.

• 어망, 어장

죽천항 부근 36-05-00N, 129-26-30E 위치에 어망밀집지역이 존재한다. 어망의 종류는 정치망이 대부분이며 육안 및 레이더로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왕돌초 부근인 36-43-09N, 129-43-56E 위치에 대게를 비롯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어로활동이 활발하다.

• 기항지 위험요소

포항-울릉 항로 간 압초, 천소 등 항해 장애요소가 거의 없고 해무도 자주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항해여건은 좋은 편이지만 항해거리가 길고 항해 도중 피항할 장소가 없는 것이 결점이다.

• 선박교통량

포항항 여객터미널 부근에서는 구항에 입·출항하는 어선에 주의해야 한다. 구항을 벗어나면 포항항 투묘지가 있으며 포항 신항 및 영일만 신항에 입항을 대기하고 있는 선박이 상시 존재하고 있다. 영일만 신항 방파제 부근에서는 영일만 신항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교차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울릉도 부근은 소형어선들의 어로작업이 빈번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저동항 입·출항 시 저동항 방파제로 인해 어선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동항에는 정기 화물선인 미래15호, 금광11호 및 다수의 바지선이 기항하고 있어 다른 선박이 입·출항 시 여객선 통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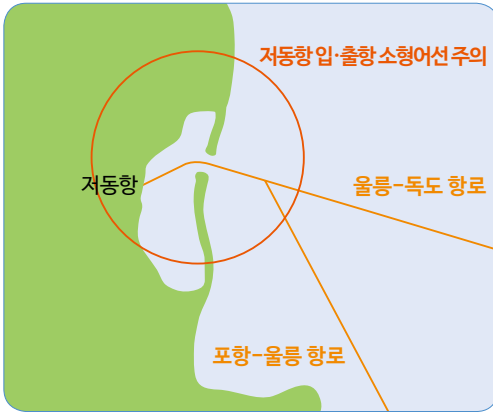
1 포항항 부근



2 울릉도 부근



3 울릉도 저동항 부근



4 울릉도 사동항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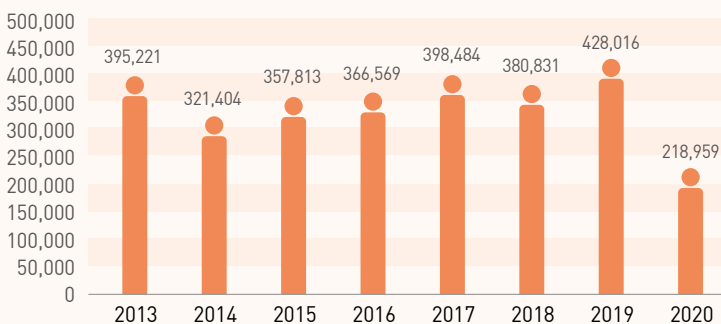
5. 수송실적 현황

연도별 수송실적(2013~2020년)

포항-울릉 항로는 연간 30~40만 명 가량의 수송실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기준 218,959명(일반인 146,708명, 도서민 72,251명) 수송하였으며, 차량은 185대(일반 128대, 도서민 57대) 수송하였다. 차량은 연간 1,500~2,000대가량의 수송실적이 유지되었으나 초쾌속카페리 여객선 샘플라워호가 선령 만기로 2020. 2. 28. 이후 운항 종료되고 대체선으로 쾌속선인 엘도라도호가 운항함에 따라 해당 항로에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하기 전까지 차량 수송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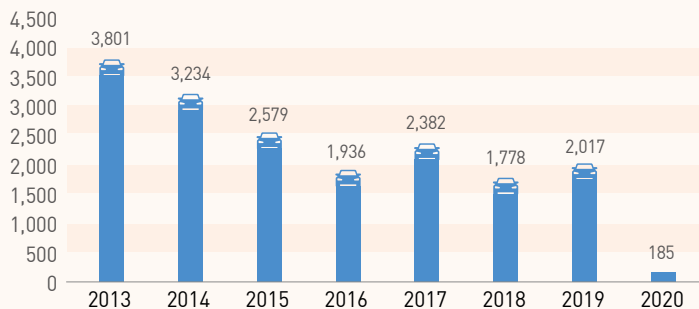
여객수송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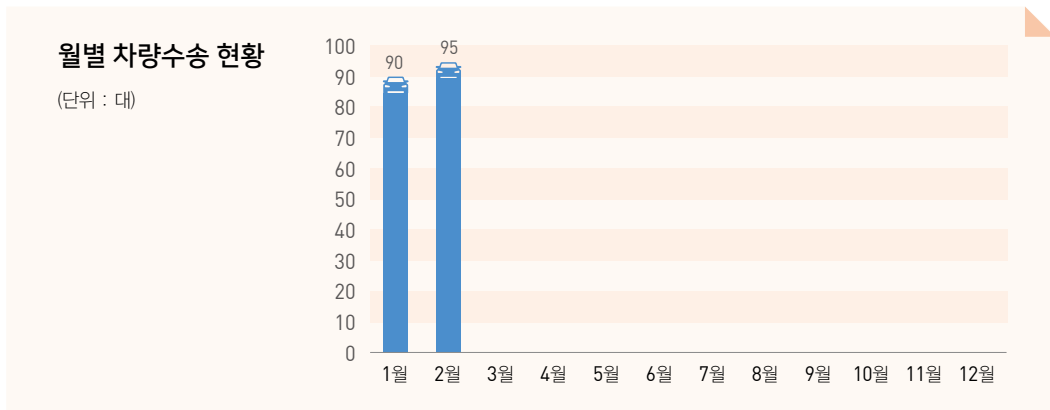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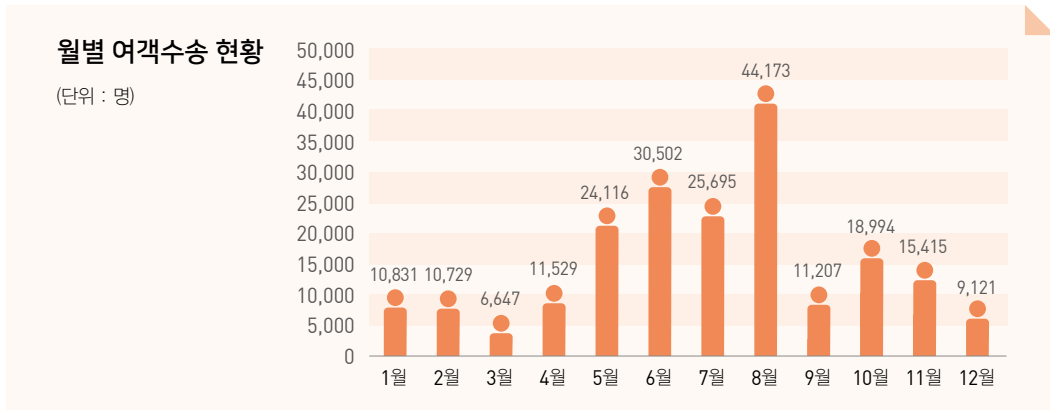
차량수송 현황

(단위 : 대)



🔍 2020년 수송실적

봄철(3월)부터 가을철(11월)까지 울릉도 및 독도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여 수송실적이 높게 유지된다. 평상시 최성수기는 5월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송실적이 주춤하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하던 8월에 수송실적이 호전되었다. 겨울철에는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이 잦아 관광 수요가 감소하여 수송실적이 낮은 편이다. 초쾌속카페리 여객선 선편라워호가 선령 만기로 2020. 2. 28. 이후 운항 종료되어 2020년 2월 이후 차량 수송실적이 없다.





02

후포 ~ 울릉 ~ 독도 항로

후포에서 출항하여 대한민국 국토 동쪽 끝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항로이다.

후포-울릉-독도 항로는 동해바다에 위치하여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항로로 비교적 단순한 해상교통 요건을 갖고 있는 항로이다. 연중 조석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고 조류도 약한 편이라 비교적 항해여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동절기 풍랑특보 발효 시 북동풍의 유입으로 고파고 및 돌풍현상이 발생하며 연안 쪽에서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남고북저형의 기압배치 시, 저기압 및 전선 통과 시 남서풍이 강하게 발생하며 먼바다에서 돌풍현상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결항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4~5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나들이객 및 등산객들로 수송수요가 증가한다. 나리분지, 봉래폭포, 관음도를 비롯하여 울릉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도를 방문하는 수송수요가 늘어난다. 독도에 입도 할 수 있는 날씨는 약 60여 일 정도로, 입항이 불가능할 시에는 선회관광을 실시한다.



1. 운항 여객선

🔍 씨플라워호

씨플라워호는 후포항에서 울릉도 사동항 및 독도로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이다. 월·수·목요일에는 10:00에 후포항을 출항하여 14:30에 울릉 사동항에서 후포항으로 되돌아오는 1일 왕복 1회 운항하며, 화·금·토요일에는 08:00에 후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 기항 후 후포항으로 돌아오고, 일요일에는 여객 수요에 따라 후포-울릉 간을 왕복 1회 내지 왕복 2회 운항한다. 주요 이용객은 울릉도·독도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편의시설로는 매점이 있다.


기항지
소요시간


후포-울릉(2시간 30분) / 울릉-독도(1시간 30분)






총 톤수	388톤	운항횟수(왕복)	1회	기관출력(kw)	1,440×4
여객정원	443명	항해속력(노트)	38	진수년월	'16.03.
승무정원	4명	운항거리	후포-울릉 86마일 울릉-독도 48마일	소요시간	2시간30분 1시간30분
선종	초쾌속선	여객선사	(주)제이에이치페리		






☑️ 선사 홈페이지



☑️ 여객선 안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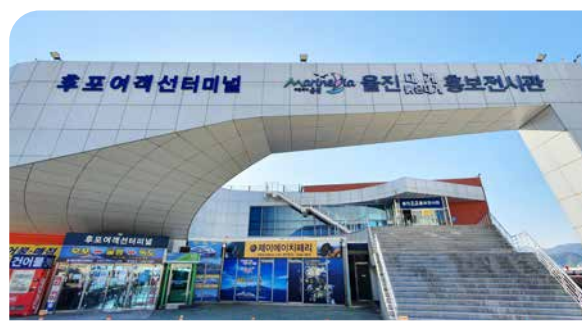
☑️ 여객선 운항정보

2. 접안시설 현황 및 특징

후포항

후포항은 태백산맥 동쪽에서 동해와 접한 지역인 빙장말 남서단에 있는 연안항으로 어항 중 비교적 큰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항내수심 2.3~8.5m에 저질은 모래이다. 항내 여객선 부두는 빙장말에서 남서쪽으로 후포항 방파제와 항 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한 피항지다. 겨울철에 계절풍이 발달함에 따라 서풍~북서풍이 특히 강하게 불며 여름철에는 남동풍, 가을에는 북남풍이 많고 동풍이 불 때 풍량이 심하다.

•배치도



1 후포 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51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2. 4. 30.



2 후포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50 x 20 x 2.5
접안시 선수방위	332°
거주인구(명)	(울진군) 49,000

🔍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와 접안부두가 매우 근접해 있어 협소한 항내수역에서 방파제 통과 직후에 접안자세를 취해야 한다. 20kts 이상의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경우 압류가 심하고 방파제 통과 직후 대각도로 변침해야 하므로 증속할 수 없어 선박 조종이 아주 불리하다. 이안 시 전방 및 후방의 여유수역이 부족하여 수평이동(정횡이동) 후 출항한다. 정박 중 동풍 계열의 바람 및 파도 유입 시 부진동현상이 발생하므로 여객 승·하선 시 주의를 요한다.

• 배치도





1 울릉도 사동항 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6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2. 5. 1.



2 울릉도 사동항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270 x 20 x 3
접안시 선수방위	294°
거주인구(명)	9,200



- ☑ 포항-울릉 정기화물선 두 척이 사동항에 기항하고 있어 화물선 입·출항 시 통항선에 의한 상호 간섭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독도항

동도의 선착장으로 길이 80m, 폭 12m의 안벽이다. 접안지가 외해에 노출되어 있어 남서풍 및 서풍의 바람과 너울 유입 시 여객선의 접안이 어렵다. 동도와 서도가 17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병풍효과에 의한 국지적 돌풍현상이 발생하며 입항 시 부두와 5~10m 이상 거리를 두고 접근하여 수평이동으로 접안해야 한다.

•배치도



1 독도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80 x 12 x 3
접안시 선수방위	031°
거주인구(명)	25

3. 항로구간의 수로 정보

조류 및 조석

• 조류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의 특성으로 조류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바람에 의한 미약한 표면류가 있다. 주로 해류의 강약에 따라 유향, 유속이 변하며, 유속은 1kts 이하이다. 울릉도 부근에는 0.8kts 이하의 편동 해류가 흐르고 있다.

항로구간	최강창조류		최강낙조류	
	유향	유속	유향	유속
후포-울릉-독도	-	-	-	-

• 조석

동해안 간만의 차는 연중 최대 30cm 내외에 불과하다.

(단위:m)

구 간	현 황		표준항인 후포항과 조시차(분)
	고조	저조	
후포항	0.19	0.08	-
울릉도 사동항	0.23	0.09	+ 9분(표준항 : 울릉도)
독도	0.22	0.10	-(표준항 : 독도)



기상 특이사항

• 바람(항해에 지장을 주는 풍향)

동해안에 위치한 항구 및 그 인근해역은 태백산맥이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을 차단하여 바람이 비교적 약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바람이 강해져 동해안 인근과 울릉도 인근의 기상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울릉도 부근해역은 연평균 풍속이 3.7m/sec이고, 8m/sec 이상 강풍이 부는 날은 연중 208일, 기상특보 발효일수는 67회에 달하고, 기상 상태가 양호한 여름을 제외하면 월 평균 15~22일 동안 강풍이 분다. 봄철 이동성 고기압이 확장할 때 국지적인 돌풍이 자주 발생하고 해역의 수심에 따라 파고의 차이가 심하다.

•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주로 7~10월경 발생하며, 태풍의 진행경로에 따라 울릉도는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을 뿐 아니라 적절한 태풍 피항지가 없기 때문에 울릉도에 태풍 내습이 예상될 경우 포항 또는 진해 등 안전한 지역으로 피항한다.

• 평균 풍속 시 파고높이

구 분	NW	NE	SW	SE
5m/s	1.1~1.2m	1.2~1.4m	0.9~1.2m	1.0~1.2m
10m/s	2.0~2.5m	2.0~2.5m	1.8~2.3m	1.8~2.3m
15m/s	3.2~3.8m	3.3~4.0m	2.8~3.8m	3.0~3.8m

4. 항로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항로상 위험요소



• 해무 발생지역

동해안은 서해안, 남해안에 비하여 해무 발생일수가 적은 편이다. 울릉도 인근 해역의 연 평균 해무 발생일은 약 16일 정도이며, 해무 발생 시기는 4~8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간 해무 발생일은 연간 해무 발생일에 80%가량을 차지한다. 해무의 지속시간은 평균 4시간 미만으로 짧은 편이며, 일출 전에 해무가 발생하여 일출 이후 기온 상승으로 해무가 소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7월에 발생하는 해무는 지속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간혹 수일간 소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암초

항로에서 약 5마일 떨어진 36-43-09N, 129-43-56E 위치에 수중암초인 왕돌초가 존재한다.

• 어망, 어장

왕돌초 부근인 36-43-09N, 129-43-56E 위치에 대게를 비롯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어로활동이 활발하다.

• 기항지 위험요소

후포-울릉 항로 간 암초, 천소 등 항해 위험요소가 거의 없고 해무도 자주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항해여건은 좋은 편이지만 항해거리가 길고 항해 도중 피항할 장소가 없는 것이 결점이다.

• 선박 교통량

후포항 부근 소형어선과 바지선이 후포항에 빈번히 드나들기 때문에 입·출항 시 주의해야 한다. 왕돌초 인근해역에서 어로활동이 활발하므로 해당지역을 항해 시 철저한 견시가 요구된다. 울릉도 부근에서 소형어선들의 어로활동이 빈번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사동항에는 정기 화물선인 미래 15호, 금광1호 및 다수의 바지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항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타 선박의 입·출항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독도 부근은 선박 교통량은 많지 않으나, 어로작업 중인 소형 어선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후포항 부근



2 울릉도 부근



3 울릉도 사동항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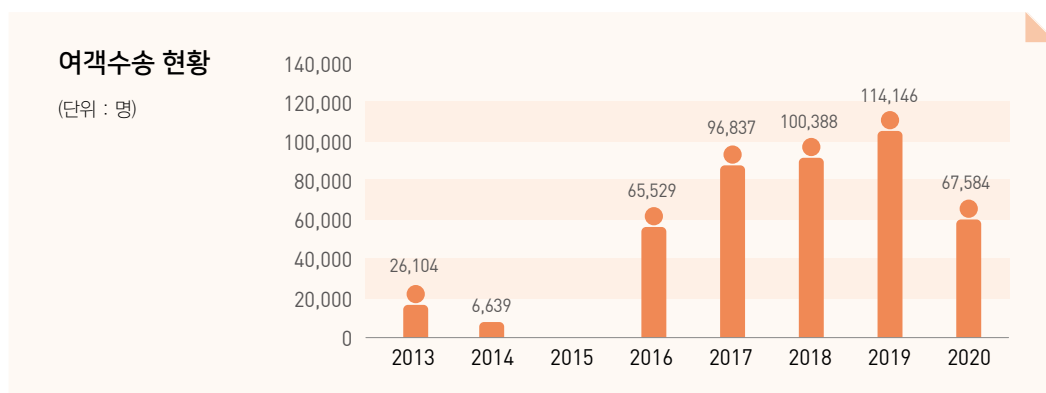
4 독도 부근



5. 수송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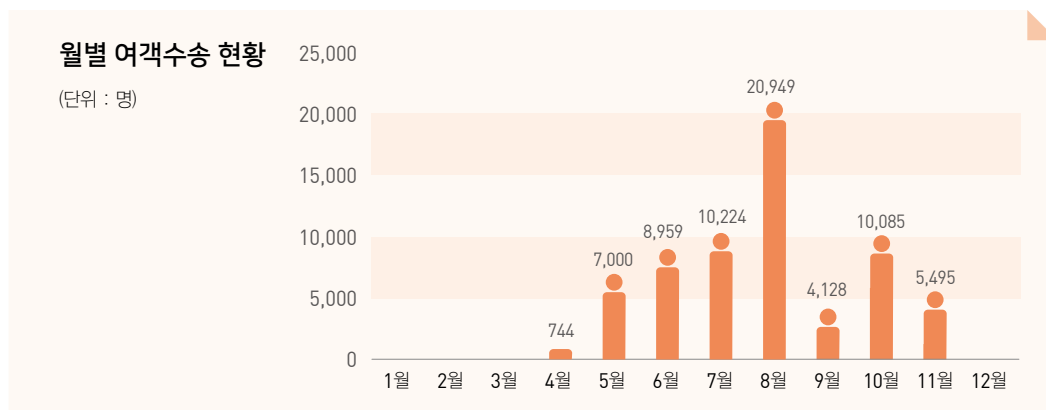
연도별 수송실적(2013~2020년)

후포-울릉 항로는 연간 10만 명 전후의 수송실적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2020년은 67,584명(일반인 62,679명, 도서민 4,905명)이 이용하였다. 도서민보다는 울릉도·독도 여행객 수요가 주를 이룬다. 포항-울릉 항로 대비 운항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으로 코로나19 종결 이후 여객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수송실적

봄철(3월)부터 가을철(11월)까지 울릉도 및 독도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여 수송실적이 높게 유지된다. 평상시 최성수기는 5월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송실적이 주춤하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하던 8월에 수송실적이 호전되었다. 매년 12월에 동계절 휴항으로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운항이 재개된다.





03

울릉 ~ 독도 항로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항로로 운항거리 약 48마일, 소요시간 약 2시간의 항로이다.

주요 기항지인 독도는 울릉도와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맑은 날에는 망원경이 없어도 울릉도에서 관측이 가능하며, 울릉도의 독도전망대에 오르면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독도는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와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로 나뉘는데 동도에는 선착장이 있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으며, 굴바위 등 각양각색의 기암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독도는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많은 지역으로 여행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5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나들이객 및 등산객들로 수송수요가 증가한다. 나리분지, 봉래폭포, 관음도를 비롯하여 울릉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도를 방문하는 수송수요가 늘어난다. 독도에 입도 할 수 있는 날짜는 약 60여 일 정도로, 입항이 불가능할 시에는 선회관광을 실시한다.



1. 운항 여객선

🔍 웨스트그린호

웨스트그린호는 울릉도 저동항에서 독도로 운항하는 부정기 여객선으로 08:30에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독도를 거쳐 울릉도 저동항으로 되돌아오는 1일 왕복 1회 운항하고 있으며, 여객 수요에 따라 오후에 증편 운항하기도 한다. 주요 이용객은 독도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편의시설로는 매점이 있다.

기항지
소요시간 울릉-독도(2시간)



총 톤수	297톤	운항횟수(왕복)	1회	기관출력(kw)	1,960×2
여객정원	344명	항해속력(노트)	30	진수년월	'96.08.
승무정원	5명	운항거리	48마일 (왕복)	소요시간	2시간00분 (왕복)
선종	쾌속선	여객선사	(주)대저해운		



☑️ 선사 홈페이지



☑️ 여객선 안전정보



☑️ 여객선 운항정보



2. 접안시설 현황 및 특징

울릉도 저동항

울릉도 동안에 위치한 국가어항이다. 항내수심은 2~12m이며 저질은 바위, 펄, 모래이다. 항의 입구는 동쪽으로 열려 있으며, 서풍 계열의 바람이 10m/s 이상일 경우 지형의 영향으로 국지풍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접안에 주의를 요한다. 호안 면적이 1,000여 척(10톤 510척, 30톤 150척)의 어선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으며, 기항지 부두 안쪽에 다수의 어선이 접안해 있어 입·출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돌제부두가 방파제와 거의 일직선에 위치하여 북동 너울 형성 시 너울이 항내로 바로 유입되니 기상 악화 시 비교적 안전한 항내 또는 사동항으로 피항해야 한다.

• 배치도





1 울릉도 저동항 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3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0. 12. 3.



2 울릉도 저동항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30 x 9 x 3
접안시 선수방위	264°
거주인구(명)	9,200



주의할점!

- ✓ 3km 앞 해상에 죽도와 마주하는 촛대암이 있어 입·출항 시 기준이 된다.
- ✓ 안벽 선수부근에 암초가 있어 부두와 근접하여 입항하며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



🔍 독도

동도의 선착장으로 길이 80m, 폭 12m의 안벽이다. 접안지가 외해에 노출되어 있어 남서풍 및 서풍의 바람이 불 때와 너울 유입 시 접안이 어렵다. 동도와 서도가 17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병풍효과에 의한 국지적 돌풍현상이 발생하며 입항 시 부두와 5~10m 이상 거리를 두고 접근하여 수평이동으로 접안하여야 한다.

• 배치도



1 독도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80 x 12 x 3
접안시 선수방위	031°
거주인구(명)	25

3. 항로구간의 수로 정보

🔍 조류 및 조석

• 조류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의 특성으로 인해 동해안에는 조류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바람에 의한 미약한 표면류가 있다. 주로 해류의 강약에 따라 유향, 유속이 변하며, 유속은 1kts 이하이다. 울릉도 부근에는 0.8kts 이하의 편동 해류가 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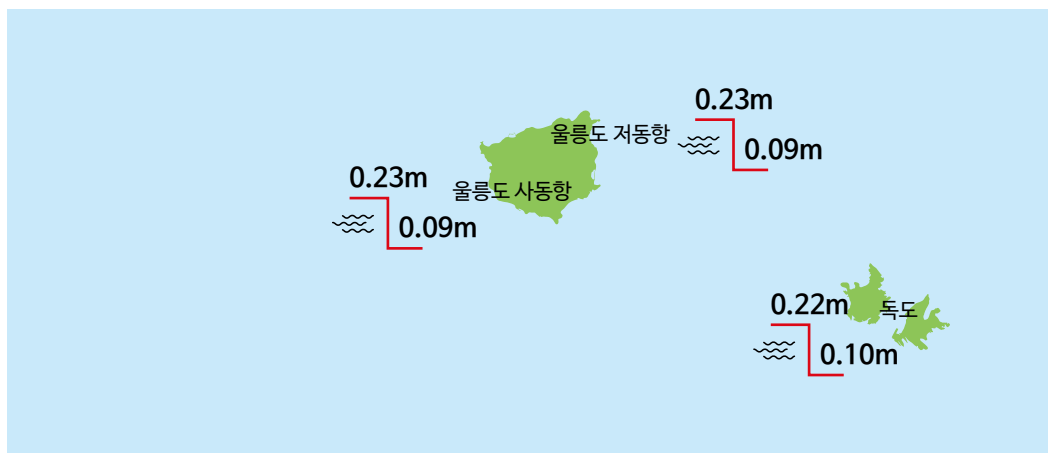
항로구간	최강창조류		최강낙조류	
	유향	유속	유향	유속
후포-울릉-독도	-	-	-	-

• 조석

동해안 간만의 차는 연중 최대 30cm 내외에 불과하다.

(단위:m)

구 간	현 황		표준항인 울릉도와 조시차(분)
	고조	저조	
울릉도 저동항	0.23	0.09	-
울릉도 사동항	0.23	0.09	+9분
독도	0.22	0.10	- (표준항 : 독도)



기상 특이사항

• 바람(항해에 지장을 주는 풍향)

울릉도 부근해역은 연평균 풍속이 3.7m/sec이고 8m/sec 이상 강풍이 부는 날은 연중 208일, 기상 특보 발효일수는 60여 회 정도로 여름철을 제외한 월 15일 내지 22일 동안 강풍이 부는 날은 연중 208일, 기상특보 발효일수는 67회에 달하고, 기상 상태가 양호한 여름을 제외하면 월 평균 15~22일 동안 강풍이 분다. 봄철 이동성 고기압이 확장할 때 국지적인 돌풍이 자주 발생하고 해역의 수심에 따라 파고의 차이가 심하다.

•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주로 7~10월경 발생하며, 태풍의 진행경로에 따라 울릉도는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을 뿐 아니라 적절한 태풍 피항지가 없기 때문에 울릉도에 태풍 내습이 예상될 경우 포항 또는 진해 등 안전한 지역으로 피항한다.

• 평균 풍속 시 파고높이

구 분	NW	NE	SW	SE
5m/s	1.1~1.2m	1.2~1.4m	0.9~1.2m	1.0~1.2m
10m/s	2.0~2.5m	2.0~2.5m,	1.8~2.3m	1.8~2.3m
15m/s	3.2~3.8m	3.3~4.0m	2.8~3.8m	3.0~3.8m

4. 항로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항로상 위험요소



• 해무 발생지역

동해안은 서해안, 남해안에 비하여 해무 발생일수가 적은 편이다. 울릉도 인근 해역의 연 평균 해무 발생일은 약 16일 정도이며, 해무 발생 시기는 4~8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간 해무 발생일은 연간 해무 발생일에 80%가량을 차지한다. 해무의 지속시간은 평균 4시간 미만으로 짧은 편이며, 일출 전에 해무가 발생하여 일출 이후 기온 상승으로 해무가 소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7월에 발생하는 해무는 지속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간혹 수일간 소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어망, 어장

항로 구역상 울릉도 인근 해역(37°27'40"N, 130°56'00"E), 독도 인근 해역(37°14'10"N, 131°51'15"E)이 어선조업 다발지역이다.

• 기항지 위험요소

울릉-독도 항로 간 암초, 천소 등 항해 장애요소가 거의 없고 해무도 자주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어서 항해여건은 좋은 편이지만 항해거리가 길고 항해 도중 피항할 장소가 없는 것이 결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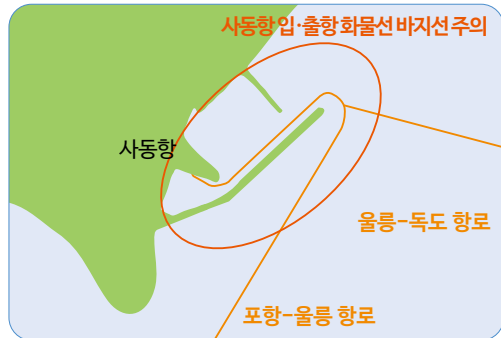
• 선박 교통량

울릉도 부근에서 소형어선들의 어로작업이 빈번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저동항 입·출항 시 저동항 방파제로 인해 어선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동항에는 정기 화물선인 미래15호, 금광11호 및 다수의 바지선이 기항하고 있으며, 항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다른 선박이 입·출항 시 여객선 통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독도 부근은 선박 교통량은 많지 않으나, 어로작업 중인 소형 어선이 많으므로 주의해야한다.

1 울릉도 저동항 부근



2 울릉도 사동항 부근



3 울릉도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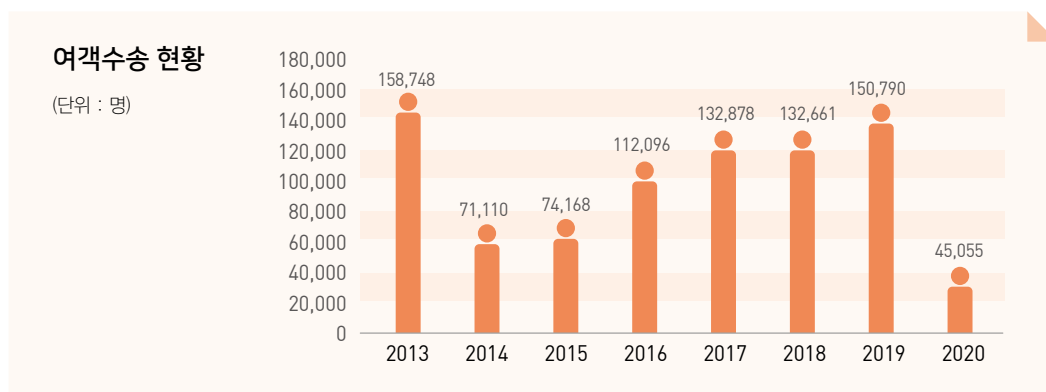
4 독도 부근



5. 수송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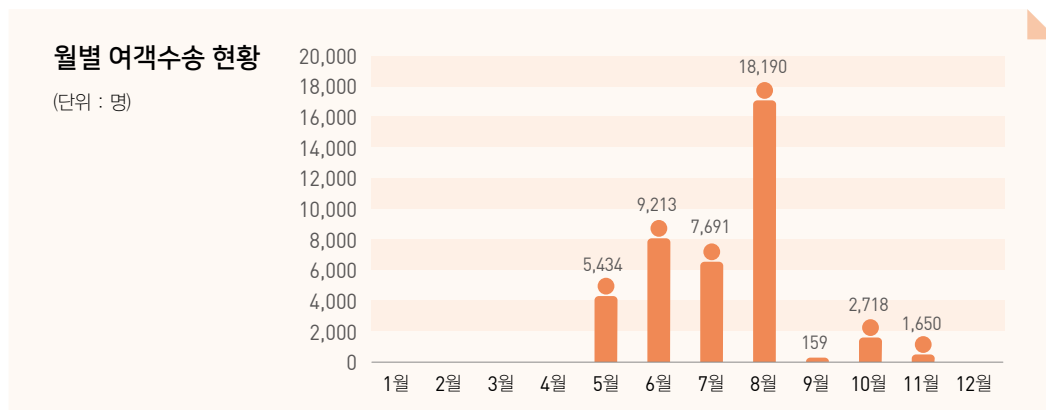
연도별 수송실적(2013~2020년)

울릉-독도 항로는 연간 13만 명 전후의 수송실적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2020년은 45,055명(일반인 44,776명, 도서민 279명)이 이용하였다. 독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종결 이후에는 울릉-독도 항로의 여객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수송실적

봄철(3월)부터 가을철(11월)까지 독도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여 수송실적이 높게 유지된다. 평상시 최성수기는 5월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송실적이 주춤하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하던 8월에 수송실적이 호전되었다. 매년 12월에 동계철 휴항으로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운항이 재개된다.





경북의 멋

국제교류와 해양문화의
중심도시

포항시

1949년 8월 영일군에서 분리된 포항시는 인구 5~7만 명의 소규모 도시였으나, 1970년 포항제철 착공, 1995년 영일군과 통합 이후 현재는 50만 명 수준을 유지 중이다. 위치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서부 지역은 산악지대로 태백산맥의 남단에 해당하며, 동쪽은 동해와 접하고 있다.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자랑한다.



*출처: 포항시문화관광, 포항시



수려한
자연환경을
한눈에!



영일대해수욕장

“한국최초의 해상누각”

백사장길이 1,750m, 너비 40~70m, 면적 38만㎡로, 포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욕장에 해상누각인 영일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에 오르면 POSCO와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백사장의 모래가 고와 가족단위피서지로 적합하다.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95



📍 포항운하

“포항의 새로운 물길”

포항운하는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총 1.3km 구간에 건설된 인공운하이다. 과거 도시개발에 따른 하천과 주변공간의 환경 파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고자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1월에 준공되어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 하였다. 포항운하를 체험할 수 있는 포항운하 크루즈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수변공원을 비롯하여 포항운하관, 캐릭터해상공원 등 관광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같이 방문할 만한 곳도 많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040



📍 포항함 체험관

“1,200톤급 함선 체험관”

1984년 취역하여 우리 바다를 수호하던 PCC-756 포항함이 2009년 퇴역하여 포항에서 안보체험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천안함과 동일제원의 함정으로 2010년 6월 12일 포항 시민의 날에 개관하였다. 함상체험관,故 한주호준위 일대기, 천안함 46인 전사자 추모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205



경북의 맛

*출처: 포항시문화관광



The 신촌's 닭죽

동빈내항 인근에 위치한 닭죽집이다. 시금치와 소고기가 들어간 시소닭죽, 소라와 돌문어가 들어간 소문닭죽이 대표메뉴이다. 하얀 죽 위에 닭밥 재료가 올라간 음식으로 비비지 않고 먹는게 정석이라고 한다. 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편안하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다.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294번길 10-7

☎ 054-243-3264



해구식당

과메기는 신선한 생선을 썬서 영하 10℃의 냉동상태로 두었다가, 겨울철 바깥에 내다 걸어 자연상태에서 냉동과 해동을 거듭하여 말린 것으로 그 맛이 일품이다. 해구식당에서는 청어과메기와 콩치과메기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같이 제공되는 쌈채소가 배추, 미역, 파래김 등 다양해 먹는 재미가 있다.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2길 18

☎ 054-247-5801



고바우식당

돼지주물럭과 오징어석쇠구이가 대표메뉴인 곳이다. 방송에서 소개된 후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맛집에서, 관광객도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오후에 문을 열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온 손님, 반주를 하러 온 손님이 섞여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5길 15

☎ 054-247-7306





📍 환여횃집

어부들이 풍어 기간 음식 먹을 사이도 없어 고추장 푼 그릇에 생선을 썰어 넣어 물을 넣고 후루룩 먹었다던 물회는 이제 포항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다. 현재에는 물대신 살짝 열린 육수를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환여 횃집에서는 물회를 주문하면 소면사리와 공깃밥, 매운탕을 같이 제공해 사시사철 맛있는 물회를 먹을 수 있다.

🏠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189-1

☎ 054-251-8847

